

AR 9

Art in cultur
2014년 12월

Art

아트인컬처
December 2014

Special Feature /
한국의 회화 13인×13인
Matching & M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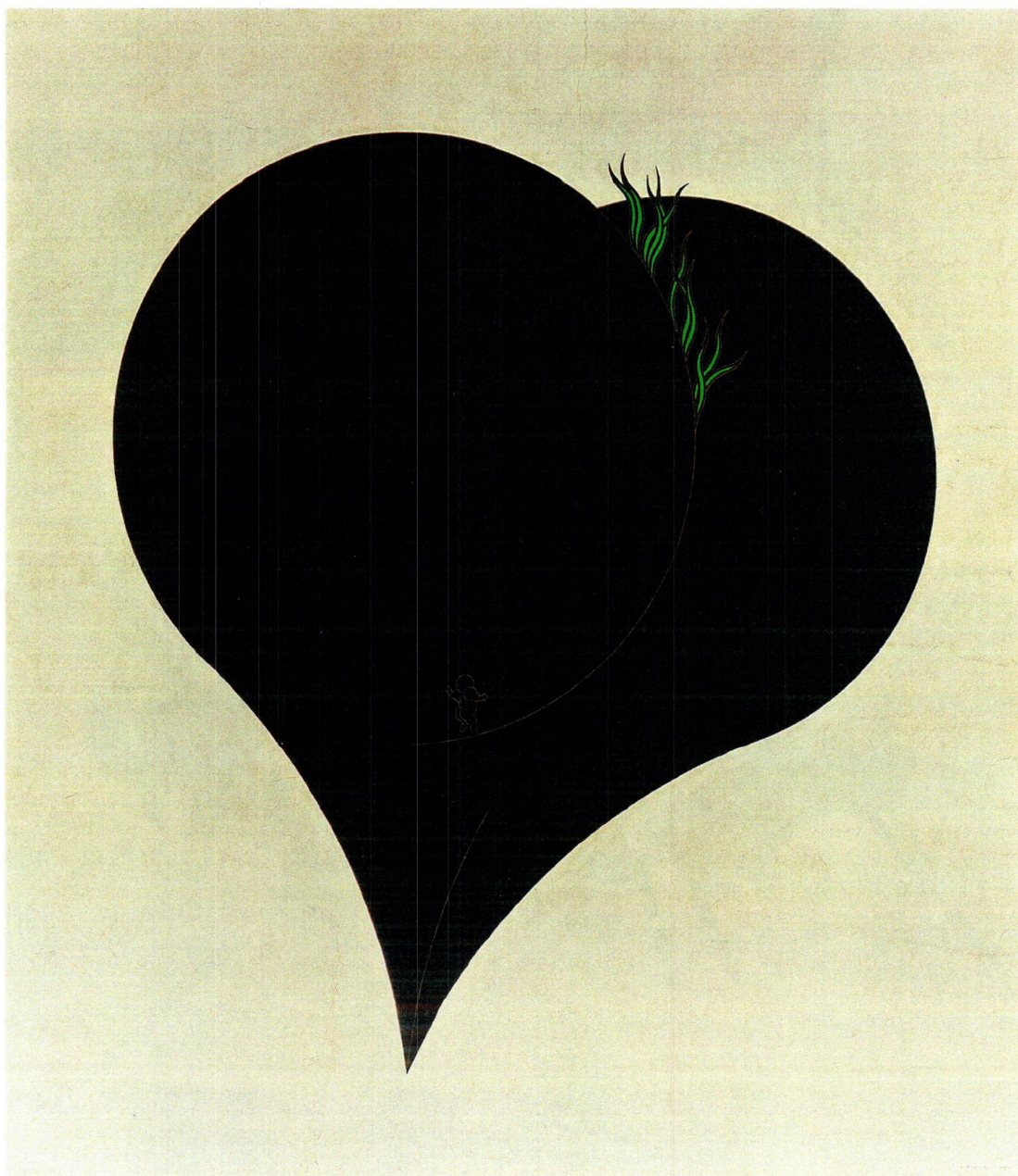
Abroad/
요코하마트리엔날레
타이베이비엔날레

Market/
런던 Frieze, 파리 Fiac

Theme/
독립 출판, 세계 지형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Essay/
단색화 '촉각적 보기'

양대원 ← 안창홍



양대원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광목천에 한지, 아교, 아크릴릭, 토분, 린시드유
148×134cm 2011

*양대원 / 1966년 경기도 출생. 세종대 회화와 및 동대학원 서양화 전공 석사 졸업. 1991년 세종대 과학관 106호에서 첫 개인전 후, 2014년 경남 양산 갤러리회에서 19번째 개인전 개최. <소통과 모색 그 방향성>(전북도립미술관, 2009), <STUDY> (사비나미술관, 2011) 등 그룹전 참여. 제4회 송은미술대상(2004) 수상. 제27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2005). 현재 성균관대 미술학과 및 중앙대 한국화와 겸임교수.

"하루 종일 '그림은 왜 그리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바라본 세상의 기억들이 그의 몸속을 부유하고 그 부유물은 언어가 되어 입 밖으로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기억의 언어들... 차갑고 뜨거운 언어들이 뒤엉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색이 된다. 애초 그의 기억은 이미지였다."

슬픈 여름

금년은 이른 봄부터 1년여를 풍경 그리기에만 전념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작업실 마당에 자리 잡은 ‘뜰’을 그렸다. 뜰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 흙을 퍼다 날라 마당 한편에 꽃밭을 만들고 화묘를 심고 씨를 뿌리고 관찰하는 데만 2~3년을 보냈다. 비록 방치된 듯 야생의 뜰 안에 마련한 작은 터의 꽃밭이지만, 꽃들은 스스로 번식하고 소멸하며 제각각의 생존 방식으로 치열하게 서로의 터를 잡아 갔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존재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다른 생명체들과 뒤엉켜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으로 뒹굴어야 하는지! 바람, 햇살, 습기, 너무나 많은 벌레들, 작은 새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간! 그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생태는 완고하고 거칠면서도 섬세하고, 냉혹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공평했다. 그런 자연의 생태를 바라다보며 오랫동안 생각하고 갈망해 왔던 풍경화의 방향을 잡아 갔다. 그 와중에 현실은 가혹하고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20014년은 나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든 해였다. 무차별 학살된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과 여객기 피격으로 숨진 수백 명의 사람들, 이라크 내전, 아프리카 빈국들의 끝없는 전쟁과 살육, 기아, 에볼라. 전 세계를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약육강식의 경제 논리가 모든 가치의 우위를 점한 광기와 탐욕의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잊힐까 두려운 세월호 사건! 197일 동안 바다 속에 수장되어 있던 수현이가 열여덟 번째 생일날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가슴에서 통정이 느껴졌다. 이렇게 슬픈 생일이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채 펴 보지도 못한 꽃망울들이 대다수인 302명의 생목숨을 수장시킨, 더러운 음모로 가득한 이 사건이 작업하는 동안 내내 나를 괴롭혔다. 분노와 슬픔, 어른으로서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몇몇 작품들 속에 이런 심리적 갈등들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그림 중 한 점이 <슬픈 여름>이다.

*양대원은 자존과 독심과 고집스러움이 한데 버무려진, 요즘 세태에선 보기 드물게 귀한 작가다. 섬세하고 직설적인 성격과 고독함이 작품에도 그대로 배어 나온다. 자기만의 독창적인 언어로 만들어 내는 간절하고 담대하고 바늘 끝 같은 긴장감이 묻어 나는 비타협적인 조형성, 대중적이진 않지만 격조 있는 향기! 타성과 사대주의적 사고를 갖춰야 살아남기 쉬운 저급한 미술판에선 독창적인 목소리가 오히려 홀대 받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 / 안창홍



안창홍 <슬픈 여름>
캔버스에 유채 136×346cm
2014